이덕일의 '역사의 창'

'자찬 묘지명'을 쓰는 마음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였던 전남 강진에서 마재로 귀향한 지 4년 후에 '자찬 묘지명'(自撰 墓誌銘)을 지었다. 순조 22년(1822) 회갑 때였다. 일반적으로 남이 써주는 묘지명을 스스로 지은 특이한 사례였다. 정약용은 '자찬 묘지명'에서 임오년(1762)에 태어난 자신이 다시 임오년(1822)을 만났다면서 "뭐로 보더라도 죄를 회개할 햇수다. 수습하여 결론을 맺고 한평생을 다시 돌이키고자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조의 죽음과 함께 정약용 일가의 운명도 급전직하로 몰락했다. 바로 위의 형 정약종은 천주교도란 이유로 사형당하고 정약용은 맏형 정약전과 함께 유배형에 처해졌는데 이런 세상은 도무지 끝날 기미가 없었다.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언덕은 학문뿐이었다.

그래서 다산은 유배지에서 공부에 몰두했다. 공부는 그에게 단순한 피안의 언덕이 아니었다. 노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현실적으로 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역사에서까지 패자가 될 수는 없다는 그의 승부수가 학문이었다. 그에게 집필은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자신과 시대의 진실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자식들에게도 공부를 권했지만 과거 길이 막힌 자식들은 학문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실망한 그는 순조 2년(1802) 두 아들에게 쓴 편지에서 "너희들이 마침내 배우지 않고 스스로 포기해 버린다면 내가 쓴 저술과 편찬한 책들은 장차 누가 거두어 모아서 책으로 엮고 다듬고 교정을 하며 정리하겠느냐"라고 꾸짖었다. 이 꾸짖음이 범상치 않은 것은 "이 일을 이루지 못하면 내 책들은 끝내 세상에 전해지지 않을 것이고, 내 책이 후세에 전해지지 않으면 후세 사람들은 단지 사헌부(司憲府)의 계문(啓文)과 옥안(獄案)에 기대어 나를 평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장차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

사헌부의 계문과 옥안이란 지금으로 치면 검찰의 기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이란 뜻이다. 자식들이 자신의 학문을 정리해 놓지 않는다면, 즉 자신의 학문을 후세에 전하지 않는다면 훗날 사람들은 자신을 박해했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자신을 볼 것 아니냐는 뜻이었다. 그에게 학문은 미래 세대에게 전하는 한 불우한 지식인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그리고 뜻밖에 환갑까지 맞이하자 스스로 '자찬묘지명'을 써서 지난 인생을 정리했던 것이다.

고종은 노론에 치우친 군주였지만 남인이었던 다산 정약용만은 높이 평가했다. 갑신정변 이듬해(1885) 고종은 정약용 저서의 필사를 명했다. 그래서 1885~86년까지 어람본(御覽本)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가 만들어진다. 그의 사후 49년 만이다. 그런데 이 '여유당전서'에는 어떤 저작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중형 정약전의 '선중씨(先仲氏) 묘지명', '정헌 이가환 묘지명' 등 정약용이 쓴 다른 사람들의 묘지명과 자신의 '자찬 묘지명'이었다.

사후 50년이 지났지만 그의 후손들은 여전히 묘지명의 내용들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했다. 세상은 여전히 그가 자찬 묘지명을 비롯한 여러 '묘지명'에서 악당(惡黨)이라고 비판했던 노론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불우했던 지식인이 미래 시대에 걸었던 희망은 큰 성공을 거두어 그의 학문 세계는 '다산학'으로 불리는 거산이 되었다. 반면 그를 단죄했던 사헌부의 계문(啓文)과 옥안(獄案)은 웃음거리가 되었다.

지난 1월 15일 신영복 선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성공회대학교의 빈소를 찾았다. 개인적인 인연은 없었지만 신영복 선생이 주관하던 인문학습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던 사이였다. 선생은 늘 온화한 표정 속에 확고한 역사적 관점을 갖고 있었다.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조문 행렬이 건물을 휘감으며 늘어서 있어서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신영복 선생은 '자찬 묘지명'을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영결식에서 불려진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강물 따라 가고 싶어 강으로 간다/ 강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넓은 세상 보고 싶어 바다로 간다"는 노래가 마치 묘지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찌 보면 비슷한 인생을 산 다산 정약용과 쇠귀 신영복, 지하에서라도 서로 알아보고 손을 맞잡았을 것만 같다.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

社 說

설 민심, '아전인수' 말고 인물·정책 대결을

설 연휴,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총선 화제로 뜨거웠다. 야권이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국민의당으로 나눠져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맞은 설이어서 곳곳에서 선거 이야기가 후끈했다.

지역을 돌아본 광주·전남 현역의원들은 각각 자당의 우위를 주장했다.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자리 잡은 더민주 의원들은 안정감 측면에서 더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문재인 전 대표 사퇴 이후 이른 시간에 당의 기틀을 다지고, 신진 인사 영입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 예전의 지지를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역민의 지지세가 확고해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당에 대한 지지가 굳어지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일보가 지난 2~3일 광주·전남 지역 유권자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42.9%로 더민주 28%보다 우위를 보였다.(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선거가 60여 일 남은 현재의 지지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선거마다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쳐 투표 당일까지 지지세가 널뛰기하는 것은 상례였다. 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물·정책 대결이라는 사실에 대다수가 동의한다. 설이 지나고 선거 국면이 본격화된 만큼 얼마나 참신한 인재를 후보로 내세우고,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해 신망을 높이고 감동을 주느냐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서로 지금 상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는 데만 급급 한다면 여론은 돌아설 수밖에 없다. 누가 됐든 선의의 경쟁으로 호남정치를 복원하고 전국 선거에서 야권의 승리를 이끄는 데 진력해야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기대 크다

광주시가 대형 건설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하기로 해 주목된다. 건설 사업의 경우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과 재정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는 "각종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기간·공종별 분할 발주를 검토하고, 지역 의무 공동도급,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용역과 입찰 제안서 평가에서도 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고 지역 제품을 사용할 경우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번 시의 발표 내용 가운데 주목을 끄는 것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이다. 내달 1일 공포되는 이 개정안은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확대하고 공동수급 및 하도급 참여 우수 업체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역의 우수한 자재와 장비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재 사용률을 현행 60%에서 65%, 장비 사용률은 90%에서 97%로 상향조정한다.

또 시는 내달 중 SOC등 계속사업의 조기 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고 올해 신규 사업도 실시설계 및 발주 절차 이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 3조613억 원 중 68.2%인 2조881억 원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시의 대책은 경기 침체로 극심한 운영난에 빠진 지역 건설업체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무엇보다 근래 광주 지역 대규모 재개발 공사의 수주권을 대기업 대형 건설사들에 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아무리 그럴듯한 지역 업체 부양 대책을 내놓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꼼꼼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아울러 지역 중견 건설업체들 역시 견실한 시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는 한편 경쟁력을 보다 높여야 할 것이다.

의료칼럼

명절 후 피로 풀기

강 채 미
박달나무한의원 원장

연휴가 끝난 후에는 평소의 생활 리듬이 깨져 몸에 피로가 쌓이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 만성피로, 전신근육통, 작업능률의 저하, 졸림, 두통 등을 호소한다. 이런 증상은 1~2주 이상의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원인은 장거리 여행과 각종 일에 시달려 피로가 누적된 데다 평소와 다른 환경에 노출돼 정신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연휴 마지막 날 보다 하루 앞서 집으로 돌아와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

주부에게는 명절이 큰 고욕일 수 있다. 오랜 시간 많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무거운 물건들을 들어올리다 자칫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발생하는 허리나 무릎, 어깨 부분 등의 통증은 근육 긴장형 통증이다. 관절 주변의 인대나 근육들이 긴장돼 통증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온찜질과 스트레칭을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나 등산, 계단 오르내리기 등 허리근육에 무리가 가는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뜨거운 목욕물로 목욕을 하거나 뜨거운 계피차나 모과차를 8~12g가량 끓여 마셔도 좋다. 혈액순환이 잘돼 다리가 따뜻해지면서 요통이 가라앉고 손발 냉증과 저림증도 없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평소 요통으로 고생하던 사람은 바른 자세로 일을 해야 하며 한 자세로 장시간 일을 하는 것보다는 잠깐 휴식을 한 후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명절 후 나타나는 요통이 단순 근육통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디스크가 증상으로 나타나 심해지는 것인지 구분해서 치료할 필요가 있다. 단순 근육통은 허리 주변부위 통증으로 국한되는데 비해,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엉덩이나 허벅지 뒤쪽으로 통증이 타고 내려가거나 저린 증상이 동반된다. 디스크 증상이 의심된다면 바로 병원 진단을 받아야 한다.

명절 연휴 동안 가사 노동을 많이 하고 나서 '어깨가 천근만근이다'라는 말을 많이 한다. 이것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등 부위의 근육인 승모근이 많이 뭉쳤을 때 주로 표현되는 방식이다.

한의학에서는 어깨 부위에 불필요한 습이 정체돼 있을 때 근육이 굳고 통증을 유발한다고 본다. 이 습을 제거해 주는데 좋은 약재가 바로 갈근(칡뿌리)이다. 어깨가 많이 무겁고 아플 때에는 칡즙이나 칡차 등을 따끈하게 마셔주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어깨 쪽 승모근의 별칭은 스트레스 근육일 정도로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이 굳는 부위이다. 따라서 어깨 부분이 무거우면서 아플 때에는 스트레스 관리가 동시에 필요하다. 명절 때 속상한 일이 있었다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서 해소한다든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어깨관절의 움직임에 문제가 생긴 것은 근육보다는 인대나 관절 문제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근육통이든 관절통이든 근본적으로는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받는 게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가족들끼리 모여 따뜻한 덕담을 나누기도 하지만 상처가 주는 말이 오가기도 한다. 그 때문에 명절이 끝난 후에도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열이 얼굴로 올라오는 등의 심신증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럴 때 간단하게 대추차를 끓여 마실 것을 추천한다. 대추에는 예민해진 신경을 가라앉히고 피로를 빨리 회복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병의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 우울증이나 화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온 가족이 모이면 술 한 잔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지만, 가족이나 집안 어른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시다 보면 과음이 돼 명절 후에도 힘들 수 있다. 숙취에는 대파 뿌리 흰 부분을 많이 넣고 끓인 묽은 된장국이나 칡차가 좋다. 물을 많이 마시고 운동이나 사우나 등을 통해 땀을 흘리면 주독 제거에 효과를 볼 수 있다.

無 等 鼓

차(車)들의 도시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겪는 큰 고충은 주차난이다. 주택가 주변의 대부분 지역은 늘 주차장을 방불케 한다. 변변한 공용 주차장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마음이 상해서 낯선 이에게 전화를 건 일이 있다. 사람 하나 몸을 비틀어야 겨우 빠져나갈 정도의 틈만 남겨 놓은 채 누군가가 우리 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웠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어 수화기를 들었다. "이렇게 차를 세우시면 어떡해요?"라고 볼멘소리를 하자 "죄송한데 제가 먼 곳에 와서…"라며 양해를 구한다.

곰곰 생각해 보니 그 차주를 탓할 일만도 아니었다. 언제부터라고 할 것 없이 시내 주택가 담장 옆을 비롯해 차를 세울 만한 곳에는 어김없이 폐타이어, 주차 금지 입간판, 화분, 심지어 공사장에서 가져온 듯한 출입금지 팻말이 놓이기 시작했다. 치우지 못하게 쇠사슬로 묶어 놓은 폐타이어도 있다. 집 주인이 자신과 가족의 차를 세우려고 놓아 둔 '장애물'이다.

감히 장애물을 치우고 차를 세웠다가는 큰 싸움을 감수해야 한다. '도로에 장애물을 놔두면 위법'이라고 따져도 '내 집 앞이 내 땅'이라는 주인장의 악다구니에 묻히기도 한다. 주택가에서 내 집 앞은 공유지가 아니라 '사유지'가 된 지 오래다.

명절이면 주차난은 한층 가중된다. 가족·친지의 방문으로 동네가 순식간에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고 만다. 이번 설에 고향집을 찾아 나서면서 교통체증보다 더 마음을 짓눌렀던 것은 "차 세울 공간이 있을까"하는 생각이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차를 몰면서 주차할 곳을 찾아 동네를 배회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플래카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초등학교에서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명절 연휴기간 교내 주차장 개방"이라고 큼지막하게 써 붙여 놓은 것이다. 차를 몰고 고향을 찾은 이들이 반가워했을 표정이 떠올라 흐뭇했다.

최근 광주시와 공공기관 등이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재산 나눔 운동을 바탕으로 공용주차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제 동네와 마을에서 이기적인 주차 행태를 개선하는 운동으로 화답했으면 한다.

/윤영기 문화미디어 부장 penfoot@

기 고

지속가능한 광주공동체 만들기

윤 희 철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부장

저성장과 양극화, 최근 우리 사회가 이 두 단어에 떠들썩하다. 수많은 뉴스에서 이 단어가 등장하고 있다. OECD는 매년 더 나은 삶 지수를 발표한다. 지난해 6월에 발표한 내용에서 우리나라는 시민참여(4위), 교육(4위), 안전(6위) 영역은 상위권에 있지만 공동체(36위), 일과 삶의 균형(33위), 건강(31위), 환경(30위) 등 영역에서는 낮은 순위에 머물렀다. 우리나라는 전체 36개국 중에서 27위를 차지했다.

특히 공동체 영역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친척, 친구나 이웃이 있다'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다. 이 영역이 최하위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한 심각한 공동체 붕괴의 단면을 보여준다.

국가 순위가 우리 지역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과학기술과 시민의식은 날로 발전, 성숙하고 있다. 광주가 민주인권 평화의 도시를 지향하지만 우리 지역이 사랑과 정이 넘치는 동네와 마을로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변혁이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9월 UN 총회에서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할 목표를 지속가능발전으로 정하고 17개 목표, 169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과거 UN의 새천년개발목표는 개발도상국의 원조를 중심으로 구성돼 지방도시 광주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다. 하지만, 새 목표에서는 도시의제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방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이행하는지가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올해는 국가의 제3차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광주도 지난해 전국 광역시로서는 처음으로 지방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같은 해 10월에 '지속가능발전 광주비전선언'을 했다.

공동체와 지속가능발전은 중요한 관계에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생명력 있는 생태계를 바탕으로 자원이 순환되는 생태순환을 생각하는 생태적 지속성,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친환경산업과 신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풍요로운 녹색경제를 구현하려는 경제적 가치를 중요시한다.

동시에 사회적 지속가능성도 중요하다. 공존과 연대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참여와 자치를 꽃피우며, 복지와 건강, 안전한 삶을 누리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경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이다. 그리고 우리 광주 공동체는 이를 마을에서부터 실현해야 한다.

1992년 세계 정상들이 브라질에 모여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리우선언'을 하고 국가는 '의제21'을, 지방정부는 '지방의제21'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 광주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전국에서 선두그룹으로 '푸른광주21'을 세웠다. 광주를 모델로 현재는 전국 220여 곳에 '지방의제21' 기구가 설립되어 운용 중이다.

그리고 이제 지속가능발전의 확산과 이행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약속을 지역에서 실천하고, 지역민이 지속가능발전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협의회는 지난 20년간 사용했던 '푸른광주21'이라는 명칭을 대신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매번 광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를 작성하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거버넌스 실천사업, 생태문화마을만들기를 통한 '지방의제21' 운동을 하고 있는 협의회는 앞으로도 광주가 지속가능한 도시이자 더불어 함께 나누고 사랑하는 지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편 집 부 2200-649 〈FAX 222-4938〉
정 치 부 2200-632 문 화 부 2200-661
〈대표 FAX 222-4918〉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